

##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### 1. 기본정보

이름	최광*	학번	
파견국가	필리핀	파견도시	수빅
파견대학	필리핀대학마닐라	기간	2017. 6. 17(토) ~ 7. 15(토)

### 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p> <p>수빅에 있는 Times-slc 어학원에 다녀왔습니다. 어학원의 규모는 건물 한 동이며 분위기는 밝고 즐거운 분위기입니다.</p>
수업	<p>수업내용, 수업방법, 분반여부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p> <p>하루에 8시간 씩 수업을 받으며 그룹수업 4시간, 1:1수업 4시간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. 선생님들께서 수업 준비를 꼼꼼히 잘 해오시고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십니다. 만약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으면 선생님을 바꿀 수 있습니다.</p> <p>▶그룹수업</p> <p>-MULTI MEDIA CLASS</p> <p>광고, 뮤직비디오를 보며 즐겁게 영어를 접하는 수업입니다. 또한 뮤직 비디오 한편과 광고 두 편을 만들어야합니다. 조원들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같이 돌아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.</p> <p>-TOEIC SPEAKING</p> <p>TOEIC SPEAKING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. 단원을 공부하고 더 좋은 답을 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줍니다. 단원이 끝날 때마다 TEST 를 본 후 개선해야할 점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.</p> <p>-READING FOR REAL</p> <p>지문을 읽고 지문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입니다. 지문에 나온 단어공부를 하고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풀며 지문 이해를 완벽하게 하는 수업입니다.</p> <p>▶1:1수업</p> <p>-CAN YOU BELIEVE IT</p>

	<p>지문을 읽으면서 숙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. 숙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상황에 맞는 문장을 만들며 여러 숙어를 배우는 수업입니다.</p> <p>-SLE 1B</p> <p>지문을 읽고 문법 사용법을 배웁니다. 배운 문법을 이용하여 예문을 만들고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.</p> <p>-IMPACT ISSUES</p> <p>지문을 읽고 내 생각을 말하는 수업입니다. 내 생각을 말하면서 올바른 표현을 배울 수 있습니다.</p> <p>-4K EEW</p> <p>단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. 영단어를 영어 해설로 이해하기 때문에 더 잘 외워지는 느낌이 듭니다. 배운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지문을 읽으면서 빠르게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.</p>
Activity	<p>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.</p> <p>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등</p> <p>여학원 일정에 계획된 Activity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.</p> <p>▶단체 Activity</p> <p>-안바야 코브</p> <p>수영장과 바다에서 수영을 하며 놀 수 있습니다. 수영장에서 놀 땐 수영복이 아니면 탈의해야 하므로 수영복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. 식비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.</p> <p>-고아원</p> <p>조를 나누어서 여러 아이들과 놀 수 있는 Activity입니다.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하기가 약간 불편합니다. 시간이 짧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. 고아원에 가기 전 간식과 생필품 기부를 위해 기부금을 걷습니다.</p> <p>-요트</p> <p>단체로 한 Activity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. 30분 정도 요트를 타고 바다에서 수영하며 놀 수 있습니다.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.</p> <p>▶개인 Activity</p> <p>-जूबिक सफारी(Zoobic safari)</p> <p>여러 동물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 가까운 거리에서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.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구경을 못 한 것이 아쉽습니다. 입장료는 695페소(14500원)이며 추가 비용을 내면 호랑이와 악어에게 밥을 줄 수 있습니다.</p> <p>-트리탑 어드벤처(Treetop adventure)</p> <p>여학원 바로 앞에 있어서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. 쥘라인, 번지점프 등을 할 수 있으며 3가지 기구를 타는데 675페소(14000원)입니다.</p> <p>-스쿠버 다이빙</p>

	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체험했으며 정말 재밌었습니다. 바다 속에서 여러 물고기와 산호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다소 아쉬운 점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계획했던 곳을 못간 것이 아쉬웠습니다. 비용은 3000페소(65000원)로 다른 Activity에 비해 비쌉니다.
--	---

### 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p> <p>어학연수 당시 현지는 우기라서 굉장히 습기가 많았고 더웠습니다. 하지만 교실은 항상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가끔씩 추웠습니다. 또한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내립니다. 외출 갈 땐 우산을 가지고가는 것을 추천합니다.</p>
안전	<p>현지 안전 상황</p> <p>어학원은 항상 가드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. 시내를 돌아다녀도 위험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지만 밤에 울롱가포를 돌아다닐 때는 무서웠습니다.</p>
숙소	<p>학교기숙사(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) 홈스테이 ( <input type="radio"/> ) 외부 숙소( <input type="radio"/> ) 기타( <input type="radio"/> )</p> <p>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수업이 약하기는 하지만 불편한 시설은 없습니다. 청소 및 빨래도 직원분들이 해주시고 룸메들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생활했습니다. 통금과 점호가 있어 문제없이 한국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.</p>
식사	<p>학교식당(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) 홈스테이 ( <input type="radio"/> ) 외부식당 (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) 기타( <input type="radio"/> )</p> <p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아침과 점심은 어학원 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밖에 가서 현지음식을 먹었습니다. 어학원 식당은 한식위주로 나오고 음식에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. 현지음식은 우리나라에 비해 짜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</p>
교통	<p>통학방법, 시내교통 관련</p> <p>시내로 갈 땐 보통 FB를 타고 저렴하게 다녔습니다. 어학원으로 돌아올 땐 보통 택시를 타게 되는데 택시를 타서 가격을 바로 흥정해야합니다. 그리고 100페소와 1000페소 지폐 색이 비슷하니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.</p>

#### 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,유학허가증(SSP), 여행자보험	726,000	출국 전 사전 납부
생활비 (400달러)	450,508원	출국 전 준비
생활비 (9000페소)	226,265원	현지에서 인출
합계	1,402,773원	

#### 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.







덥고 습기가 많은 날씨이지만 모든 건물에서 에어컨이 나오므로 추울 수도 있습니다. 긴팔을 꼭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. 모기를 비롯한 벌레가 많으므로 모기 기피제와 모기약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. 제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땀띠가 굉장히 심하게 생겼습니다. 땀이 많은 분들은 땀띠약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.

#### 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해외에 머무르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게 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한 달이었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	
<p>안바야 코브</p>	<p>쥬빅 사파리</p>
	
<p>요트 위에서</p>	<p>트리탐 어드벤처</p>
	
<p>수빅 베이</p>	<p>클락 공항</p>